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19일 목요일 음 2월 25일 (2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오후에는 구름많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12℃, 낮 최고 기온은 15~18℃의 분포를 보이겠다.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예상돼 각종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주	10%
20%	성산	10%
20%	고산	10%
20%	서귀포	10%

해돋이 06:39
해질 18:45
물때 만조 08:42
20:20

달돋이 03:48
달질 14:02
간조 01:26
15:02

주간예보

〈문의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7/17℃
모레 구름 많음 10/21℃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관심
감기가능지수 보통

월드뉴스

美, 코로나19 확산에 살인범 사형 중단

일부 카운티는 수감자 석방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미국에서 살인범의 사형 집행까지 중단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17일(현지시간) CBS뉴스에 따르면 텍사스 항소법원은 일가족 살해로 사형을 선고받은 존 윌리엄 험멜의 형 집행을 연기했다.

항소법원은 18일로 예정된 사형 집행을 중단한 이유로 '보건 위기 상황'을 언급했다.

험멜의 변호인은 최근 사형 집행 장소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사형 집행 중단에 이어 일부 카운티에서는 교도소 수감자를 조기 석방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교도소 내부로 코로나19가 전염되는 상황을 대비해 수감자 숫자를 미리 줄여놓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사형집행을 미룬 텍사스 항소법원.

CNN 방송에 따르면 오하이오주의 카이여호가 카운티 교도소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경미한 수준의 수감자 200여명을 석방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교도소로 번질 경우 수감자들을 격리하고 치료하기 위해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도 교도소 수감자를 조기 석방했다.

이에 따라 1만7076명이었던 수감 인원은 1만6459명(16일 기준)으로 감소했고, 체포 건수도 하루 평균 300건에서 60건으로 줄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윤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구독신청·배달료 750-233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일론



양상철
융합서예술가·문화칼럼니스트

지난주에 아주머니 환자분께 어디가 불편하냐고 물었다. 아주머니는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증상이라 생각해서 더 자세히 물었다. 그랬더니 “선생님 그게 아니라 어제 제 남편이 죽었어요. 같은 병에 걸린 후 서로 다른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제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 이후 가슴이 너무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 코로나 의료봉사 활동 현장에서 전해온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다. 사람이 죽고 사

코로나19,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들

는 문제가 어쩔 수 없더라도, 장례절차가 격리된 상황에서 처리되고 심지어 남편의 마지막 얼굴 한번 보지 못할 부인을 생각하면 안타깝기가 그지없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유가족 등의 아래 ‘선 화장, 후 장례’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유족은 적법성을 떠나 추모의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망자를 떠나 보내야하는 일이 참으로 참담할 것이다. 평생을 함께 살다 떠나는 고인에게 예를 다하지 못하는 유족의 슬픔과 허탈함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요즘에야 장례절차도 편하고 많이 간소해 졌지만, 제주에는 죽은 남편과의 슬픈 이별을 처절하고도 담담하게 치른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1864년(고종 1년) 중국에 표류되어 귀환도중 사망한 남편 유해를 찾아 중국 의주까지 건너간 부인의 이야기다. 바다를 건너는 것조차 힘들었을 그때 부인 고 씨는 가족 중에 힘줄만한 남자가 없음을 염려하다 결국 13세 아들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났다.

두 모자는 이곳저곳 헤매고 걸식까지 하며 마침내 의주까지 도착했다. 가매장된 남편의 유해를 거두어 흑은 지고, 흑은 이며, 마침내 고향 땅을 밟았다. 두 모자가 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전통적 유교 윤리의식이 철저했을 당시 사회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정말 눈물 나는 감동 스토리다.

이 두 모자의 행적을 기리는 열효비(烈孝碑)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세워져 있다.(故金汝彬妻高氏 若其男金才明 烈孝碑, '제주도금석문

집' 제주문화원)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거리가 한적하다. 거리에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마스크에 목숨을 걸고 서로 외면하듯 걷는다. 마스크는 쉬지 않고 감염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세며, 매 시간마다 죽음의 문턱을 확인하고 있다. 세상이 이렇듯 황당하더라도 망자와의 슬픈 이별까지 간섭받고, 눈물마저 찢든 마스크 속에 감춰야 할 일인가? 죽고 사는 일이 간단치 않고 또 야속해졌다.

정부의 방역 초기 대응 실패에도 불구하고 팔을 걷어 뽐기에 나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어 그나마 위로를 삼는다.

두려움이 일상처럼 무겁게 자리잡은 코로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해 평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가족 잃은 유족들과 슬픔을 나누며 망자의 명복을 빈다.

열린마당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통합 의료안전망 구축



고인숙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시가 작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맺으면서 2년 6개월에 걸쳐 182억원을 투자하게 될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은 시민의 제일 소중한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에는 사업기간이 6개월여밖에 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단과 평가단 구성, 제주대학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에 의한 보건 의료서비스 수요 및 지역주민 건강수준 분석, 사업계획 수립 등의 준비기간이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은 사업을 본격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2020년에는 응급환자 이송역량 강화를 위해 다량환자 발생 대비 대형 구급차를 구입·지원할

제주 섬속의 섬 추자의 코로나19 극복기



진보람
제주시 추자면사무소

평화롭던 추자도에도 최근 코로나19의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처음에는 “설마 추자도에서도 발생하겠어”라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제주지역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전국적으로도 확진자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더 이상 추자도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추자면에서는 '이용자 눈높이 맞춤형 주민소통망'을 활용해 주민 990여명에게 감염예방수칙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마을방송으로 예방수칙 동영상 송출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주1~2회 정기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지역자율방재단 등 전 자생단체가 여객선대합실, 경로당, 마을회관, 마을정자 등을 대상으로 합동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공시설물 외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추자수협, 추자우체국, 지역 마트, 종교시설 등은 시설 자체에서 직접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더불어 추자면에서는 어선과 관내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 압축분무기(소독약품 포함)를 대여하고 있다.

추자면은 최근 지역 6개 마을이장과 협의하고 마을순번제로 공적마스크를 배부기로 했다. 또 묵리마을에서는 마스크 구입비용을 마을회에서 직접 부담해 주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훈훈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추자도에서는 민·관이 모두 힘을 모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꽃피는 봄을 맞아 더 많은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청정 추자'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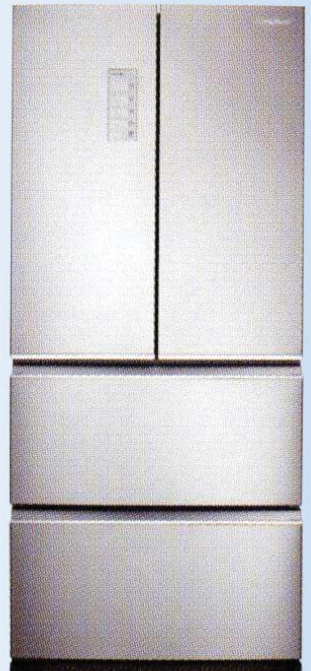
오리지널의 공식대로
The Original dimchae°

위니아 덤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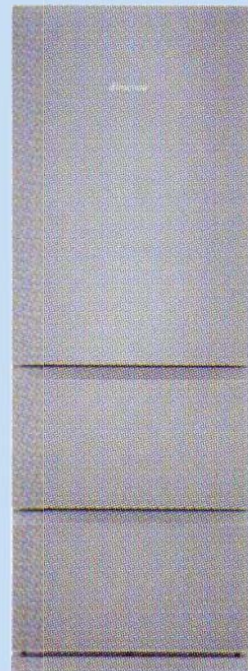
전품목 할인행사

덤채는 각방마다 냉각기가 하나씩!
업계 유일 4by4 룸별 독립냉각

하나의 덤채로 네대의 덤채를!



BDQ57DKNXS
노바실버(메탈)



WDT33DPGYSS
슬릭워브실버(유리)



BDL22DJSXS
헤이즈실버



BDL18DETRSS
루센트실버

취급품목 김치냉장고 덤채° / 프리미엄 냉장고 PRAUD° / 에어컨(가정용, 업소용, 천장형) / 냉·난방기(초절전버터방식, 히트펌프식) / 덤채° (바전기압력밥솥) / 에어워셔(가습, 제습, 제균, 청정) / 세탁기, 건조기 / 제습기, 공기정화기

(주)대유위니아 제주점 전시장 : 제주시 삼도2동 1112-1(북성로27호, 북교후문) T. 721-9095~6, 755-9095, F. 755-9096